



안녕하세요! 박정자 수녀입니다. 저는 한국관구 본원이 있는 광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996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첫 파견은 본당에서 하였습니다. 2003년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도직을 하다가 2005년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으면서 저도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1년 동안 이수하여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몇 년 후인 결혼이주여성 쉼터에서 가정폭력피해 여성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해와서 정착하기도 전에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폭력에 노출된 이들에게 본국에 있는 가족과 쉼의 역할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로서 쉼터에 와있는 이주여성들에게는 피해자가 되기 전



에 예방과 초기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센터에서 사도직을 하게 되었을 때 쉼터에서 느꼈던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도직을 시작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가족센터 내에서 업무가 변경이 되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안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여 여성들도 행복하고, 아내와 어머니가 행복함으로써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예수님도 이방인이셨듯이 나 자신도 타인에게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안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여 여성들도 행복하고, 아내와 어머니가



행복함으로써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예수님도 이방인이셨듯이 나 자신도 타인에게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하였는지 돌아봅니다.





Hello! I am Sister Park Jeong-ja. As the youngest of two brothers and two sisters, I was born in Gwangju, Korea, where the Provincial House is located. I entered the Congregation in 1996, and my first ministry was parish work. In 2003, I ministered at the Jecheon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and made



perpetual vows in 2005. While working at the social service facility, I wanted to provide direct services to clients, so I took a year of required courses to become a social worker.

A few years after finishing my studies, I worked at the Shelter for Women Victimized by Domestic Violence, I stayed with women who had bee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or I spent time with those who migrated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were exposed to violence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even before settling in, like their own families would in their home countries. I realized that migrant women who came to the shelter as victims needed to be helped and guided to settle in well before they became victims.



I am grateful to God that I am able to put into practice what I felt in the shelter when I started ministering at the Family Center for Multicultural Families again. It has only been three months since I started this ministry, and my duties also have changed within the Center, but I hope to be able to help and pray for them in my

work. So, I want the women to settle down well in Korea and be happy, and I also hope that the whole family will benefit through migrant wives and mothers becoming happy.



At the end of every day, I consider myself a stranger to others, just as Jesus was a stranger, and I reflect on whether we, as strangers, have loved each other enough to help us settle into a caring community.

